

복음의 권세를 누리라

성경 사도행전 16:16-34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은혜의 찬양 373장)

- 1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 2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2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찬송가 285장)

- 1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 2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 3 새사람 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후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말씀 읽기 사도행전 16:16-34

-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여 갔다가
-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 배경

바울은 기도하려 가던 도중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지역에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이 여인의 점괘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는지 이 여인에게 투자해 배당금을 챙기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 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17b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렇게 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18b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즉시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으

니 기뻐해야 하는데,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터가 움직이고 뒤틀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수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 관찰

1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나요? (18절)

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해설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보자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17절)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쳤고,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 악한 영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2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6절)

답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해설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여인이 치유받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고 지쳤을 텐데도 여전히 복음의 권세를 감옥에서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수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누리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9-4 이르되 주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 = 65 작곡 고보영

이 르 되 주 예 수 를 믿 으 라 그 리 하 면

너 와 네 집 이 구 원 을 받 으 리 라 하 고

사 도 행 전 십 육 장 삼십일 절 아 — 멘 —



가정예배 기도문

우리 가정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